

<9급 총평>

2월 23일 서울시 국어는 아주 어렵지도 아주 쉽지도 않게 이상적 난도로 출제되었다. 2013년부터 문제를 공개해 온 서울시 문제는 이제 황당하고 비이성적인 문제는 사라졌고, 이성적이고 예상 가능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문제 구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국어규범’과 관련된 것이 8문항인데, 지난 서울시보다 3문제 줄었다. ‘국어의 문장성분, 음운 변동, 높임법, 단어의 짜임새, 형태소의 교체, 조사의 성격’등 대체로 예상한 영역에서 출제되었다. 어휘의 형성 체계와 피동문과 사동문 에 대한 설명을 묻은 문제가 약간 까다로웠다. 이 영역은 공부한 학생이라면 한 문제도 놓쳐서는 안 되는 영역이므로 수업 시간에 강조한 내용을 잘 숙지하는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한문을 포함한 ‘어휘’는 지난해보다 1문제 많은 5문제가 출제되었다. ‘한자성어, 나이, 어의의 변화’등 모든 내용이 수업 시간에 다룬 것이라 그리 어렵지 않았다. 순수 한자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고 한문이 출제되었으나 평이한 문장이라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어휘는 언제나 학습 부담이 많은 영역이다. 모든 어휘를 외울 수는 없다. 수업시간에 강조한 주요 어휘를 바탕으로 시험까지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겠다는 학습 태도가 필요하다. ‘읽기’는 서울시답게 지문은 짧고 내용도 쉬웠다. 2문제 모두 특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읽기영역이 거의 출제되지 않는 것은 국가직과 다른 서울시만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서울시가 아닌 직렬을 공부하는 학생이 이 시험을 바탕으로 읽기 영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문학’은 ‘황동규와 구상의 시가 출제되었고, 규중칠우쟁론기, 언문’ 등이 출제되었다. 눈에 띄는 것은 작년 시험과 동일한 시인 즉 구상과 황동규의 작품이 출제된 것이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인데, 출제 위원이 동일한 사람으로 사려된다. 그리고 작품을 주고 시대순으로 배열하라는 문제는 서울시만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또 ‘이응태 묘(안동)에서 출간된 언문’이 제시문으로 출제된 것이 이색적이다. 문학은 모든 직렬에서 출제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므로 수험생은 수업시간에 언급한 문학의 기초감상법을 잘 익혀 어떤 작품이 나와도 여유롭게 특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난도에 따라 문제를 구분해 보면, 난도 상 2문항, 난도 중 13문항, 난도 하 5문항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실수를 감안하더라도 9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으로 생각된다.

01. 음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리의 강약이나 고저 등은 분절되지 않으므로 음운 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음운은 의미를 구별해 주는 최소의 단위이므로 최소 대립쌍을 통해 한 언어의 음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음운은 몇 개의 변이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음운은 실제적인 소리라기보다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기호라고 보아야 한다.

답) ①. [난도 하, 국어의 음운] - 예상한 문제 유형
음운에는 음소(音素)와 운소(韻素)가 있다. 소리의 강약이나 고저, 장단 등은 운소로 ‘비분절 음운’이라 한다.
·분절 음운(分節音韻, 일명 韻素): 음절을 분리할 수 있는 음[자음(子音)과 모음(母音)]

·비분절 음운(非分節音韻, 일명 韻素): 음절을 분리할 수 없는 음(강세, 고저, 장단)

<오답 콕>

- ② 단 하나의 소리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단어가 된 단어 쌍을 바로 ‘최소 대립쌍’ 혹은 ‘최소 변별쌍’이라고 한다. 예) 물/ 불(ㅁ과 ㅂ이 최소 대립쌍이 된다.)
- ③ 한 음소에 속하면서 음성적으로는 다르게 실현된 소리들을 변이음이라고 한다. 예) 고기[첫 번째 ‘ㄱ(k)’와 두 번째 ‘ㄱ(g)’은 음성적으로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음운으로 처리한다.]
- ④ 물리적 차원의 소리인 음성과 달리 우리의 머리와 마음 속, 즉 심리적·추상적 차원의 소리를 기호로 표시한 것이 음운이다.

02. 다음 문장 중 어법에 가장 맞는 것은?

- ① 금융 당국은 내년 금리가 올해보다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면서 대출 이자율이 2%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 ② 작성 내용의 정정 또는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서류는 무효입니다.
- ③ 12월 중에 한-중 정상회담이 다시 한 번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 ④ 그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

답) ①. [난도 중, 자연스러운 문장] - 예상한 문제 유형
② 서술어의 부당한 공유다.: 작성 내용의 정정이 **있거나**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서류는 무효입니다.
③ 이중피동이다.: 12월 중에 한-중 정상회담이 다시 한 번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④ 서술어를 잘못 사용했다.: 그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단 하루도 연습을 **거르지** 않았다.

03. 속담과 한자성어의 뜻이 가장 비슷한 것은?

- ①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 순망치한(唇亡齒寒)
- ②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 하로동선(夏爐冬扇)
- ③ 우물 안의 개구리 - 하충의빙(夏蟲疑冰)
- ④ 굵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 설중송백(雪中松柏)

답) ③. [난도 중, 속담과 성어] - 예상한 문제 유형
·하충의빙(夏蟲疑冰): 여름의 벌레는 얼음을 안 믿는다는 뜻으로, 견식(見識)이 좁음을 비유(比喻·譬喩)해 이르는 말.

<오답 콕>

- ① 순망치한(唇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 ② 하로동선(夏爐冬扇): 여름의 화로와 겨울의 부채라는 뜻으로, 격(格)이나 철에 맞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 ④ 설중송백(雪中松柏): 눈 속의 소나무와 잣나무라는 뜻으로, 높고 굳은 절개를 이르는 말

04. <보기>는 복수 표준어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따른 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 ① 가는허리 / 잔허리
- ② 고깃간 / 정육간
- ③ 관계없다 / 상관없다
- ④ 기세부리다 / 기세피우다

답) ②. [난도 중, 표준어] - 예상한 문제 유형
고깃간 - 푸줏간

05. <보기>의 로마자 표기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 ㄱ. 오죽헌 Ojukheon
 ㄴ. 김복남(인명) Kim Bok-nam
 ㄷ. 선릉 Sunneung
 ㄹ. 합덕 Hapdeok

- ① $\neg$, L ② $\neg$, C
③ L, $\Rightarrow$ ④ C, $\Rightarrow$

답) ③. [난도 하, 로마자 표기] - 예상한 문제 유형
 ㄱ. Ojukheon: 체언에서는 ‘ㅎ’을 밝혀 적어야 한다.
 ㄴ. Seolleung: [설릉]으로 발음된다.

06. <보기>의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公無渡河
公竟渡河
墮河而死
當奈公何

- ① 황조가와 더불어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서사시다.
- ② 한시와 함께 번역한 시가가 따로 전한다.
- ③ ‘물’의 상징적 의미를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몇 번을 죽어도 충성의 마음이 변지 않음을 노래하고 있다.

답) ③. [난도 중, 고전문학] - 예상한 문제 유형

公無渡河(공무도하)	그대여, 물을 건너지 마오.
公竟渡河(공경도하)	그대 결국 물을 건너셨도다.
墮河而死(타하이사)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當奈公何(당내공하)	가신 임을 어이할꼬.

-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1행의 물: 사랑

2행의 물: 이별

3행의 물: 죽음

<오답 풀이>

- ① 서정시
- ② 『해동역사』, 『고금주』 등에 배경설화와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 ④ 사랑을 바탕으로 한 사별의 정한

07. <보기>의 두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가) 임 그런 상사몽이 ㉠실술의 녀이 되어
가을철 깊은 밤에 임의 방에 들었다가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 볼까 하노라.

- (나) 이 몸이 죽어져서 ㉠**접동새** 낮이 되어
이화 핀 가지 속잎에 싸였다가
밤중만 살아서 우리 임의 귀에 들리리라.

- ① ㉠은 귀뚜라미를 뜻한다.
- ② 개, 나 모두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 ③ ㉡은 울음소리가 돌아갈 귀(歸), 촉나라 촉(蜀), ‘귀촉 귀촉’으로 들려 귀촉도라고도 한다.
- ④ 개, 나)의 작가는 모두 미상이다.

답) ④. [난도 중, 고전문학] - 예상한 문제 유형
(나)는 작가 미상이지만, (가)는 박효관의 시조다.

08. 밑줄 친 단어의 형태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멀리서 보기와 달리 산이 **가팔라서** 여러 번 쉬었다.
 ② 예산이 100만 원 이상 **모잘라서** 구입을 포기해야 했다. ③ 영
 혼을 **불살라서** 이론 깨달음이니 더욱 소중하다.
 ④ 말이며 행동이 모두 **올발라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답) ②. [난도 중, 맞춤법] - 예상한 문제 유형

‘모자르다’는 ‘-’탈락의 용언이다. 그러므로 ‘모자르+아서’가 되면 ‘모자라서’로 적는 것이 옳다. 나머지는 모두 ‘르’ 불규칙 용언이다.

09. 한자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장(延長)’, ‘하산(下山)’은 ‘서술어+부사어’의 구조이다.
- ② ‘인간(人間)’, ‘한국인(韓國人)’의 ‘인’은 모두 어근이다.
- ③ ‘우정(友情)’, ‘대문(大門)’의 구성 성분은 비자립적 어근과 단어이다.
- ④ ‘시시각각(時時刻刻)’, ‘명명백백(明明白白)’은 고유어의 반복합성이 구성 방식과 다르다.

답) ②. [난도 상, 한자어] - 예상한 문제 유형

‘한국인(韓國人)’의 ‘-인’은 사람의 뜻을 지닌 접미사다.

<오답 폭>

- ① 놀이다 길게, 내려오다 산에서
③ 우(友)와 대(大)는 비자립적 어근이다.
④ ‘時時刻刻, 明明白白’은 ‘時刻’과 ‘明白’의 반복이므로 고
유어라면 ‘時刻時刻, 明白明白’의 반복 합성어가 된다.

10. 다음 중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은?

- 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 ② 데칸 고원은 인도 중부와 남부에 위치한 고원이다.
- ③ 못 본 사이에 키가 전봇대 만큼 자랐구나!
- ④ 이번 행사에서는 쓸모 있는 주머니만들기를 하였다.

답) ①. [난도 중, 띄어쓰기] - 예상한 문제 유형
 ② 2017년 외래어 표기법 일부 개정으로 기존에는 외래어 뒤에서는 띄어 썼던 산이나 강 등의 지명은 붙여 쓰게 되었다.: **데칸고원**은 인도 중부와 남부에 위치한 고원이다.
 ③ 만큼은 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못 본 사이에 키가 **전봇대만큼** 자랐구나!
 ④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때는 용언의 명사형과 띄어 써야 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쓸모 있는 **주머니만들기**를 하였다.

11. 형태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 ① 떠내려갔다 ② 따라 버렸다
- ③ 빌어먹었다 ④ 여쭙어봤다

답) ①. [난도 중, 형태소] - 예상한 문제 유형
 뜀-어-내리-어-가-았-다(7개)
 <오답 콕>
 ② 따르-아-버리-었-다(5개)
 ③ 빌-어-먹-었-다(5개)
 ④ 여쭙-어-보-았-다(5개)

12.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 아닌 것은?

- ① 묻다(問) ② 덥다(暑)
- ③ 낫다(愈) ④ 놀다(遊)

답) ④. [난도 중, 용언의 활용] - 예상한 문제 유형
 '놀다'는 '놀아'등으로 활용하는 규칙용언이다.
 <오답 콕>
 ① 묻다: 물어 (ㄷ 불규칙)
 ② 덥다: 더워 (ㅂ 불규칙)
 ③ 낫다: 나아 (ㅅ 불규칙)

13. <보가>의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가>
 首陽山(수양산) 바라보며 夷齊(이제)를 恨(한)호노라.
 주려 주글진들 採薇(채미)도 호는 것가.
 비록애 푸새엿 거신들 그 뉘 짜헤 낫드니.

- ① 시인은 사육신의 한 명이다.
- ② 중의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③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 ④ 단종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

답) ④. [난도 하, 고전문학] - 예상한 문제 유형
 단종의 죽음이 아니라 폐위에 항거한 성삼문의 시조다.
 <오답 콕>
 ① 성삼문 · 박팽년 · 하위지 · 이개 · 유성원 · 유응부
 ② 수양산: 수양산(중국의 산), 수양대군
 ③ 백이·숙제와 관련된 고사를 인용했다.

14. <보가>의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가>
 우는 거시 벽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습가.
 이어라 이어라 漁어村촌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들락.
 至지국慰총 至지국慰총 於어思스臥와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간 고기 쉼노느다.
 년넝희 밤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달 드러라 달 드러라
 靑靑蕩약笠은 써 잇노라, 綠綠蓑사衣의 가져오나.
 至지국慰총 至지국慰총 於어思스臥와
 無무心심흔 白백鷗구는 내 좇느가 제 좇느가.

- ①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 ③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④ 후렴구를 제외하면 전형적인 3장 6구의 시조 형식을 갖추고 있다.

답) ①. [난도 하, 고전문학] - 예상한 문제 유형
 전남 보길도에서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찾을 수 없다.
 <오답 콕>
 ② 至지국慰총 至지국慰총(배 젓는 소리)
 ③ 우는 거시 벽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습가.
 년넝희 밤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④ 연시조로 후렴구를 제외하면 전형적인 시조 형식이 된다.

15. <보가>와 가장 관련이 없는 고사성어는?

<보가>
 쉼 실은 천리마(千里馬)를 알아 볼 이 뉘 있으리
 십년(十年) 역상(櫓上)에 속절없이 다 늙도다
 어디서 살진 쇠양마(馬)는 외용지용 하느니
 ① 髀肉之嘆 ② 招搖過市
 ③ 不識泰山 ④ 麥秀之嘆

답) ④. [난도 중, 고전문학-한자성어] - 예상한 문제 유형
 신봉상 중인이었던 김천택이 자신의 재능에 대한 자부과 불우한 처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작품이다.
 麥秀之嘆(맥수지탄): 보리가 무성하게 자란 것을 탄식한다는 뜻으로 나라가 무너져 예전과 같지 않음을 슬퍼하는 것,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탄식한다는 말

<오답 콕>

- ① 髀肉之嘆(비육지탄): 재능을 발휘할 때를 얻지 못하여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
- ② 招搖過市(초요과시): '남의 이목을 끌도록 요란스럽게 하며 저자거리를 지나간다'라는 뜻으로, 허풍을 떨면서 자신을 드러내어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
- ③ 不識泰山(불식태산): 인재를 알아볼 줄 모르는 것을 이르는 말

<미소 콕>

떨 나무 실은 **천리마**(작가 자신)를 알아 볼 이가 있겠는가
십년 동안 마구간에 갇혀 어찌할 도리없이 다 늙었구나
어디서 **살지고 둔한 말**(능력없는 양반)은 우쭐거리고 있느니

16. 어휘의 뜻풀이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멸차다: 재산이나 자원 따위가 매우 많고 풍족하다
- ② 상고대: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
- ③ 안다미로: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 ④ 툇아보다: 살살이 훑어 가며 살피다

답) ③. [난도 중, 순우리말] - 예상한 문제 유형
·안다미로: 담은 것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

17. <보기>는 「훈민정음언해」의 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나랏 말쑥미 中國에 달아 文字와로 서르 스몓디 아니 홀썩
이런 전초로 어린 百姓이 니르고져 흥 배 이셔도 ㅁ츨내 제
쁘들 **시러** 퍼디 ㅁ흥 노미 하니라 **내** 이룰 爲하야 어엿비 너
겨 새로 스물여덟字를 ㅁㅇㄱ노니 사름 마다 ㅎ여 수ㅁ 니겨
날로 ㅁ매 便安키 ㅎ고져 ㅎ ㅅㅁㄱ 미니라

- ① <보기>는 한 문장이다.
- ② 밑줄 친 ‘시러’는 한자 ‘載’에 해당한다.
- ③ 밑줄 친 ‘내’는 세종대왕이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 ④ ‘ㅁ’와 ‘..’는 발음이 같지만 단어들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했다.

답) ③. [난도 중, 훈민정음] - 예상한 문제 유형
① 2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능히’라는 뜻으로 한자‘得’에 해당한다.
④ ..: 혀가 오그라지고 소리가 깊으니, 하늘이 자에서 열림이다. ㅁ(모양)이 둥굴은 하늘을 본뜬 것이다.
ㅁ: ·와 같으나 입이 퍼지며 그 ㅁ은 ㅣ와 ·가 어울려 이룸이며, 우주의 작용은 사물에서 나지만 사람을 기다려 이루어짐이라.

18. <보기>의 밑줄 친 시어 가운데 내적 연관성이 가장 적은 것은?

<보기>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디치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백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늪**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 ① 차고 슬픈 것
- ② 새까만 밤
- ③ 물 먹은 별
- ④ 늪

답) ②. [난도 하, 현대시] - 예상한 문제 유형
‘새까만 밤’은 창밖의 풍경일 뿐이다. 나머지는 죽은 아이를 가리키는 시어다.

19. <보기>의 지문은 설명문의 일종이다. 두괄식 설명문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 논리적 전개에 가장 부합하게 배열한 것은?

<보기>

- ㉠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언어 단위를 어절이라 한다. 띄어 쓴 문장 성분을 각각 어절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어절이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것은 문장 구성의 기본적인 성질이다.
- ㉡ 문장은 인간의 생각을 완결된 형태로 담을 수 있는 언어 단위이다. 문장은 일정한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 지는데,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문장 성분을 생략할 수도 있다.
- ㉢ 띄어 쓴 어절이 몇 개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남자가 아주 멋지다.’라는 문장 에서 ‘그 남자가’와 ‘아주 멋지다’는 각각 두 어절로 이루어져서 주어와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 ㉤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루는 것을 구(句)라고 한다. 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구와 구별되지만,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장과 구별된다.

- ① ㉠-㉡-㉢-㉤
- ② ㉠-㉢-㉡-㉤
- ③ ㉡-㉠-㉢-㉤
- ④ ㉡-㉢-㉠-㉤

답) ③. [난도 중, 문장의 순서] - 예상한 문제 유형
·문장: 인간의 생각을 완결된 형태로 담을 수 있는 언어 단위(㉠)
·어절: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언어 단위(㉡)
·띄어 쓴 어절이 몇 개가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기도 한다.(㉢)
·구: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루는 것(㉤)

20. <보기>의 설명에 활용된 방식과 가장 가까운 것은?

<보기>

유학자들은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될 것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뿐 아니라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원칙으로 삼는다. 주희도 자신이 명덕(明德)을 밝힌 후에는 백성들도 그들이 지닌 명덕을 밝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백성을 가르쳐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민(新民)이다. 주희는 대학을 새로 편찬하면서 고본(古本) 대학의 친민(親民)을 신민(新民)으로 고쳤다. ‘친(親)’보다는 ‘신(新)’이 백성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더 잘 표현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반면 정약용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정약용은 친민을 백성들이 효(孝), 제(弟), 자(慈)의 덕목을 실천 하도록 이끄는 것이라 해석한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여 효도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여 자애의 덕행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 친민이다. 백성들이 이전과 달리 효, 제, 자를 실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롭다는 뜻은 있지만 본래 글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① 시는 서정시, 서사시, 극시로 나뉜다.
- ② 소는 식육의 즐거움조차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다.
- ③ 언어는 사고를 반영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예로 무지개 색깔을 가리키는 7가지 단어에 의지하여 무지개 색깔도 7가지라 판단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 ④ 곤충의 머리에는 겹눈과 홑눈, 더듬이 따위의 감각 기관과 입이 있고, 가슴에는 2쌍의 날개와 3쌍의 다리가 있으며, 배에는 끝에 생식기와 꼬리털이 있다.

답) ③. [난도 중, 글의 전개방식] - 예상한 문제 유형 ‘예시’에 해당한다.

<오답 콕>

- ① 분류 ② 지정 ④ 분석

[미소 강경욱 선생의 3월/4월 강의계획]

- 강좌명 : **미소국어 문학 (주 1회 8주 완성)**
- 시간 : 목 - 14:00~17:50 (3/14 개강)
- 미소국어 3권 완벽 정리
- 강좌명 : **9급/7급 미소국어 개강(주 2회 8주 완성)**
- 시간 : 월/화 - 09:00~12:50 (3/11개강)
- 미소국어 1권, 2권 완벽 정리
- 강좌명 : **2019 국가직 Final 동형문제 다잡기(주 1회 5주)**
- 시간 : 월 - 14:00~17:50 (3/4개강)
- 최신 엄선 동형모의고사 (총 12회 해결)